

WPRIM에서 사서의 역할 The Role of Librarians in the WPRIM

권 광 희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

< 목 차 >

I. 서론

II.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WPRIM) 사업

1. WPRIM의 의미
2. WHO의 6개 지역 중 WPRIM 외 다른 지역별 Index Medicus
3. WPRIM의 배경
4. WPRIM의 추진 경과
5. WPRIM의 현황

III. WPRIM에서 사서 역할

1. 정보환경의 변화
2. WPRIM에서의 사서 역할

IV. 결론

I. 서론

새로운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도서관 자료유형의 다양함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정보검색을 쉽게 할 수 있는 정보이용 환경까지 변화를 가져왔다. E-Journal이나 Web DB 등 전자매체 사용의 활성화로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문직으로서 사서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사서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는 연구지원 서비스, 주제전문 사서, 정보이용 교육의 전문화,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대출해 주고 또한 정보를 검색하는 데에 국한되어 있었다.

도서관에서의 연구지원 서비스는 이용 및 연구자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연구자들의 연구 업적을 향상시켜 대학 경쟁력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국내 학술지의 수준뿐 만 아니라 SCI, PubMed 등 국외 유수의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또한 사서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는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분야에서 사서 역할 전환도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학술지의 색인작업 등은 학술자원을 망라하여 수집해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색인과정을 거친 데이터베이스 및 자원은 결국 도서관에서 사서가 이용자에게 서비스해야 할 대상이므로 사서가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의학과 그 관련분야의 자원을 소장하고 있는 의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정보서비스를 고도화 하려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일련의 사업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의학·건강 정보 지식체계가 한국의학학술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KoreaMed를 기반으로 구축 되어졌고, 이를 위해 서태평양지역 주요국가들은 “아태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APAME))”를 결성하여 의학학술지 편집인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기하기로 했으며, 2000년 이후에 WHO를 중심으로 의학 학술지 편집인 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을 중심으로 서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보건 의학 학술지 색인정보 통합사업인 WHO Western Pacific Regional Index Medicus를 구축하여 지식정보 공유를 통해 의학·건강 연구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 나가기로 하면서 WPRIM의 구축 및 운영방안이 자연스럽게 제기가 되었고, 그 방안이 마련되어 추진되었다. 여러 계층의 경제개발 수준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시아 태평양지역 중에서 한국이 의학·건강 학술 부문의 주축이 되어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사업을 운영 관리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지역 국가간 학술교류 증진은 물론 인류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대한의학회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위원회가 공동 합의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들에서 궁극적으로는 의학 및 건강정보에 대한 쉬운 접근을 도모하는 정보지식 관리자로서 사서의 역할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 볼 수 있다. 또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 중심의 학술지 이외의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적 학술지를 수집하고, 신뢰성이 높은 서지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도 사서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태평양지역 국가들의 보건위학 학술지 색인정보 통합사업인 WPRIM(Western Pacific Regional Index Medicus)의 의미와 배경을 알아보고, 현재에 이르기 까지 그 동안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서 WPRIM에서 사서의 역할을 점검해 봄으로써 앞으로 사서의 역할 전환 및 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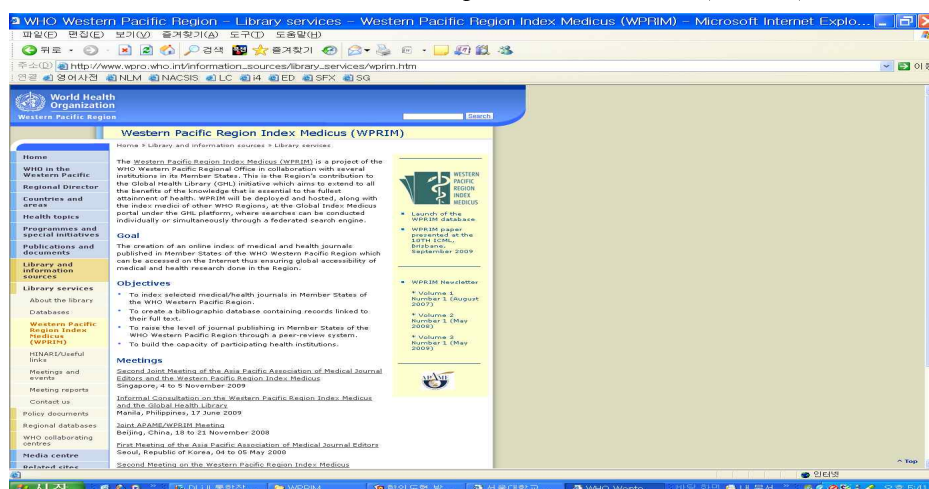
II.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WPRIM) 사업

1. WPRIM의 의미

WPRIM은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의 두문자이며, 서태평양지역 의학·건강 관련 학술지들의 통합 온라인 색인 프로젝트이다. Western Pacific Regional Index Medicus (WPRIM)가 서태평양 지역의 건강·의학 학술지를 성공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통합 검색 시스템으로 거듭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WHO 서태평양 지역 회원국의 의학, 보건 및 건강 관련 학술지들을 인덱스 하는 것, 둘째는 Full-text에 링크된 서지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기록들을 생산해 내는 것, 셋째는 상호심사(Peer-review)시스템을 통하여 서태평양 지역에서 출판된 학술지들의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한 것, 넷째는 참여하고 있는 건강 관련 기관들의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1]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WPRIM)



WPRIM은 2006년 서태평양 지역 국가간 의학지식 정보 공유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영을 KoreaMed의 방식으로 채택하여 WPRIM의 테스트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서태평양 지역 국가간 학술교류 증진 및 인류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2. WHO의 6개 지역 중 WPRIM 외 다른 지역별 Index Medicus

Global Health Library (GHL)는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개념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GHL의 3대 목표는 첫째 일반인, 환자, 보건의료전문가, 정부의 의료정책 입안자 등 각 정보 소비자 계층에게 차별화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둘째 의료기관, 사회, 국가, 회사 등 다양한 정보 생산자로부터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셋째 개발도상국 등 다양한 정보 환경에 따라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출판 방식으로 보급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GHL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Global Index Medicus(GIM) 사업이다. 세계 6개 지역에 따른 특성 있는 Index Medicus를 만드는 것이다. Medline이 선진국 중심의 문헌 정보검색시스템이라면 GIM은 개발도상국의 문헌을 색인하여 정보의 국가간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GIM은 WHO의 6개 지역별로 구축하여 통합 검색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기적인 학술지뿐 만 아니라 비정기적인 학술지 등의 간행물 색인을 통하여 국가별 특성이 수용된 자료가 검색 되도록 하고 있다. WHO의 6개 지역 중 4개 지역은 이미 지역별 Index Medicus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1) 아프리카에서는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학술지와 함께 주요 저자가 아프리카 지역인 Medline등재 학술지 논문을 색인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다.

(<http://indexmedicus.sfro.who.int/>)

2) 미주 지역에서는 Medline 자료에 지역 학술지 자료를 통합하여 검색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http://www.bireme.br/bvs/l/ihome.htm>)

3) 동부지중해 지역 국가들은 지역 학술편집인협회를 활성화하면서 학술지 색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http://www.emro.who.int/his/vhsl>)

4)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를 제외한 나라의 색인 사업을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해 정보를 얻지 못해서 오는 지식정보의 격차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http://library.searo.who.int>)

3. WPRIM의 배경

“의사들의 의료정보추구행태에 관한 탐구, 김나원, 박지홍(2009년)의 연구 결과를 요약해보면 첫째, PubMed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았으며 둘째, 연구와 관련된 정보 요구에 있어서는 PubMed에서 검색된 학술지의 논문을 선호하였으며 셋째, 정보 검색 결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근거와 권위이었다. 즉 검증된 학술 DB가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비 공식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보는 선호하지 않았으며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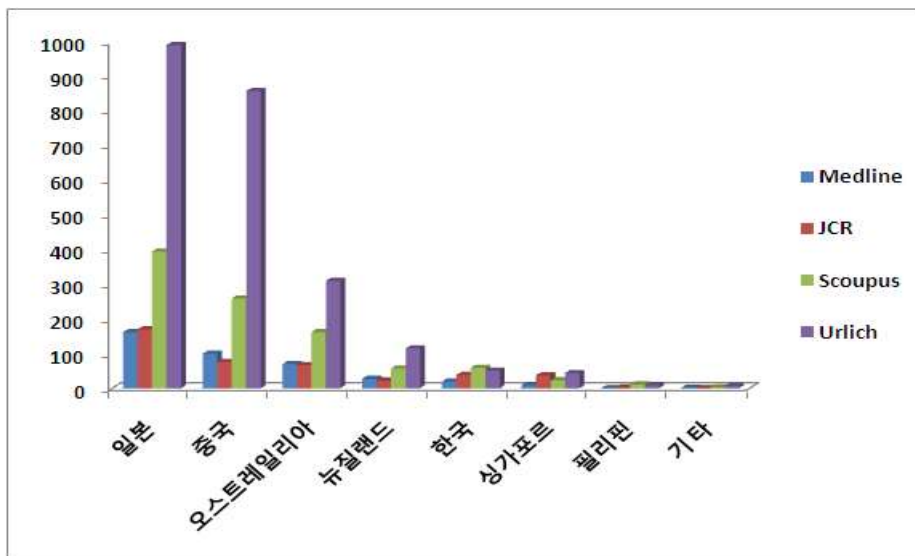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의학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로서 의학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학술정보원 연구 및 이용 행태를 보면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인텍스인 PubMed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정보가 믿을 만하고 심사를 거쳐 검증된 학술 정보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일 거라 생각한다. 이것은 미국국립의학도서관 NLM(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산하 NCBI(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Database로 Biomedical 관련 즉 의학, 간호학, 치의학, 수의학 등 최신 의학 서지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의학 분야 최고의 데이터베이스인 PubMed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논문 작성 및 서지 관리 프로그램인 EndNote가 의학도서관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지원서비스임을 뒷받침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PubMed는 생명과 직결된 의학·건강에 대한 정보가 선진국 유명 잡지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PubMed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 등 그 지역별로 맞는 의학·건강 정보까지 제공하지는 않는다. 지역이나 습성, 기후, 풍토에 따라 발생하는 질병이 다르고 처방되어지는 의료 방법까지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미 공개된 의학·건강에 대한 학술정보를 널리 공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그에 맞는 의학·건강에 관련된 학술정보를 생산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면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정보를 선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사용 목적에 맞는 특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의 특성에 대한 자료를 찾으려면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 자료를 검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아무리 좋은 건강·보건의학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발생된 질병에 맞는 건강·보건의학 정보가 생산되고 노출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에서 건강·보건의학 학술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돕고, 발표된 학술지가 색인이 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일본, 중국, 몽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를 포함하여 총 37개국의 건강·보건의학 학술연구논문을 통합 색인하여 미국 중심의 PubMed에서 찾을 수 없는 서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학술연구 논문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활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는 자국 발행 주요 학술지가 이미 Medline에 등재되어 있어 WPRIM에 추가할 정보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이나 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은 자국 정보가 일부 등재되어 있어도 아직 많은 정보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파푸아 뉴기니아, 몽골리아 등은 그 나라 정보를 현재 찾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건강·의학 학술정보를 등재할 수 있는 WPRIM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져야 함은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서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세계 유
수의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현황이다. 이 현황 또한 의학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결정적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WHO 서태평양 지역의 건강·보건의학 학술지 등재 현황



4. WPRIM의 추진 경과

GHL National Focal Point Librarians의 Regional Workshop, Kuala Lumpur, Malaysia (2005, 5월 23-25일)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의학·건강 학술지들의 Regional Union List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Regional Medical Index를 위한 Scope 혹은 Coverage, 인덱스 학술지들의 선정을 협의하였으며, 2005년 10월에서 2006년 4월 “Assessment of the Capabilities of Member Countries to Join WPRIM”에서는 필리핀의 국가 색인 Medicus를 구축하였다. 또한 필리핀 전문사서들을 Regional Index Medicus에 동참하도록 하여 회원국들의 인적, 물적 그리고 정보 기술 자원의 능력을 평가하기로 협의하였다.

2006년 1월-2월에 마닐라에서 개최된 Visit of a Volunteer Professional from the Republic of Korea에서는 한국의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KAMJE) 위원, 필리핀의 의학저널 편집자들, 정보전문가들 및 의학사서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지면서 Regional Index Medicus가 용이하게 구축되도록 지원할 것과 더불어 KoreaMed의 Platform과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WPRIM의 테스트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WPRIM의 발전을 위한 비공식적인 협의회 Informal Consultation on the Development of WPRIM, Manila, Philippines, (2006년 3월 30-31일)에서는 WPRIM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참가자들의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협의회에서는 WPRIM에 포함될 저널들의 선정을 위한 표준 및 기준들의 초안 작성, 2006-2007년에 WPRIM의 발전을 위한 계획의 개선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Western Pacific Region Peer Review Advisory Group을 설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결정되었는데 저널의 선정 표준 및 기준들을 공식화 하였으며, 2006년 12월 11-12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Meet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and Global Health Library With China Collaboration, Beijing, 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는 GHIL의 활동과 서태평양 지역의 프로젝트인 WPRIM에 포함되는 저널 선정을 위한 기준, 지위와 참여하는 국가들의 WPRIM에 대한 공헌의 정도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여 서태평양 지역의 의학·건강 학술지 통합 색인 시스템인 WPRIM에 대하여 서태평양 지역의 주요국인 중국에서 주관하도록 하여 그 설립과 발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후에도 2007년 5월 도쿄에서 개최된 Second Informal Consultation on the Development of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Tokyo, Japan(2007년 5월 17-18일)을 비롯하여, Second Meet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Seoul, Republic of Korea(2007년 11월 21-23일), First Meeting of 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APAME), Seoul, Republic of Korea (2008년 5월 4-5일), Joint Meeting of the 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APAME) and the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WPRIM), Beijing,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8년 11월 18-21일), Informal Consultation on the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WPRIM) and the Global Health Library(GHL), Manila, Philippines (2009년 6월 17일), Second Joint Meeting of APAME and WPRIM, Singapore (2009년 11월 4-5일) 등 수차례의 회의를 거친 끝에 2010년 5월에 마침내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가동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WPRIM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 받아 서태평양 지역의 WPRIM 효과를 확장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다.

5. WPRIM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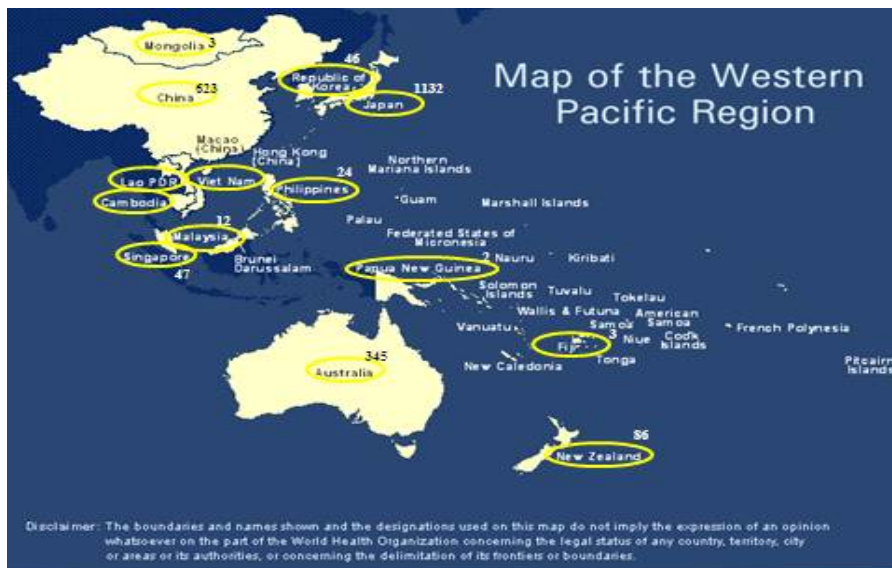
서태평양 지역의 의학·건강 관련 학술지들의 데이터베이스 통합 시스템 WPRIM에 사용 되는 플랫폼은 KoreaMed와 동일한 플랫폼으로 채택, 운영하기로 하고 진행되고 있다. 미국 NIH 산하 국립의학도서관의 PubMed를 표본으로 만든 KoreaMed는 1997년부터 운영되어 현재 국내의 우수 의학·건강 학술지 115종 11만7000 여건의 학술지들을 검색할 수 있다. KoreaMed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Korea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 KAMJE)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른 평가를 거쳐야 한다. 현재 의학 회 회원학회와 의과대학이 발행하는 학술지들을 비롯하여 간호학, 치의학, 수의학, 영양학, 및 의학물리학 관련 학술지가 등재되어 있다.

KoreaMed는 국내 모든 보건의학 학술지를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가장 넓은 범위의 보건의학 학술 데이터베이스로 하루 500여명이 접속하고 있으며, 영문 콘텐츠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는 물론 미국·일본 등 세계 80여개 국가에서 KoreaMed를 통해 국내 학술지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KoreaMed 존재가 높이 평가되면서 회원국들 사이에 KoreaMed를 기반으로 서태평양지역 Index Medicus WPRIM의 구축 및 운영방안이 제기되어 WHO 서태평양 지역이 주관하고 대한의학회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위원회가 주체하는 지역국가 회의인 Second Meet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Seoul, Republic of Korea(2007년 11월 21-23일)에서 서태평양지역 국가간 의학지식 정보 공유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영을 KoreaMed 방식에 따라 하기로 추진하여 2010년 5월에 런칭하여 서태평양 지역 국가간 학술교류 증진은 물론 인류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참여국가

서태평양지역 37개국 중 캄보디아, 중국, 피지,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리아, 파푸아 뉴 기니아, 필리핀, 코리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현재 11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그림 3] 서태평양지역 지도

2) WPRIM의 수록되어 있는 의학·건강 저널 종수 및 WPRIM의 Platform operation

| 구 분 | JOURNAL | Articles Upload | PubMed Journal | Crawling | Manual Upload |
|------------------|---------|-----------------|----------------|---------------|---------------|
| China | 201 | 37,683 | 66 | CNKI(135) | |
| Korea | 158 | 142,625 | 35 | KoreaMed(118) | |
| Japan | 4 | 844 | 1 | J-stage(3) | |
| Malaysia | 12 | 4,504 | 4 | | 8 |
| Singapore | 4 | 10,577 | 3 | | 1 |
| Mongolia | 7 | 0 | 0 | | 7 |
| Philippines | 16 | 1,537 | 6 | | 10 |
| Papua New Guinea | 1 | 1,332 | 1 | | |
| Viet Nam | 12 | 0 | 0 | | 12 |
| 합 계 | 415 | 199,102 | 116 | 256 | 38 |

III. WPRIM에서 사서 역할

1. 정보환경의 변화

도서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인쇄기록 매체에서 전자출판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게 된 출판의 변화와 획기적인 컴퓨터 기술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일 것이다. 이러한 정보매체 및 정보환경의 변화는 그동안 정보의 소장과 관리에 중점을 두던 전통적인 도서관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다. 인쇄매체에서 다양한 유형의 전자매체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정보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고 넓게 되었으며, 컴퓨터 기술과 관련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은 도서관의 정보제공 서비스의 개념을 확대 발전시켰고, 새로운 정보유통을 가능하게 해 주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구축되었다. 정보환경의 변화는 도서관 정보 환경의 변화뿐 만 아니라 정보관리자인 사서의 역할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관리 위주였던 도서관 업무는 이용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사서가 특정 분야에 국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정보서비스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에서도 그 역할 및 분담 체제를 구축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서도 사서 역할 전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WPRIM에서 사서의 역할

WHO 서태평양 지역의 의학·건강 관련 학술지 분야의 통합 인덱스인 WPRIM이 런칭 되기까지는 생성 배경 및 추진경과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을 중심으로 한 의학 학술지편집인들, 건강정보 및 IT(Information Technology) 전문가, 사서들의 협력으로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또한 의학 학술지편집인, 건강정보전문가, IT전문가, 사서들의 협조로 오늘날 WPRIM/Global Health Library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한다. 필리핀은 학술 논문 색인 Index Medicus를 필리핀 마닐라 의과대학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의학도서관협의회에서 진행해 오다가 최근에는 과학기술부 산하의 PCHRD(Philippine Council for Health Research and Development)에서도 담당하며, 중국과 일본은 초록정보와 원문정보도 함께 도서관을 통해 유료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 의학 학술지 색인은 1985년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에서 시작하였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 결성 이후는 Peer review 결과 선정된 학술지에 한하여 초록 색인 KoreaMed를 운영하고 있으며 KoreaMed 등재 의학 학술지들은 WPRIM이라는 국제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다. 최근 들어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지향하면서 사서의 명칭 또한 정보관리자(Information manager), 주제전문가(Subject specialist)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특정분야에 국한된 활동만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전문 활동으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도서관 자료가 소장보다는 접근(Access)의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서는 이용자의 현재적 요구는 물론 잠재적 이용 가능성까지도 조사 분석하여 서비스 할 수 있는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 수집된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축적, 분석 및 가공하여 정보의 효용가치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서로써 그 역할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Lancaster, 1997년). WPRIM에서의 사서의 역할 또한 정보교환 및 검색에 대한 매개자로서 역할 수행에 있다. WPRIM에서의 사서 역할 또한 마찬가지로 첫째, 활용가치가 높은 장서의 수집관리를 위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Global Health Library에 관련된 Technical Reports, Papers 등을 그리고 WPRIM Country National Journal Selection Committee에 추천할 수 있는 관련 지역건강 및 생물의학 학술지들을 검색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사서로서 역할을 다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WPRIM에서 색인되고 있는 소장자료에 대한 규칙적인 점검을 하여 각국에서 출판되는 학술지들의 Holding에 최선을 다하고 Technical Reports, Papers, 또는 지역 학술지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서지정보를 유지하고, 목록하는 작업 또한 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식정보에 대한 공유와 적절한 정보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WPRIM/Global Health Library에 포함하는 사서들 사이에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자료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출판전이라도 확정된 논문의 초록을 포함한 서지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 등 정확성과 신속성이 핵심 색인을 하기위해서 사용되는 표준들에 대하여 토의하고 협의하여 경험과 기술, 지식정보의 공유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다. 셋째, 도서관에서의 개최하는 컨퍼런스나 회의, 세미나,

정보를 읽고 쓰는 능력의 프로그램, 전시 혹은 오리엔테이션에서 WPRIM에 대한 활약을 홍보하여 각 의학도서관 간 정보 공유를 넘어 국가간 상호 정보 공유를 위한 WPRIM의 Hub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일반 이용자에게도 WPRIM/GHL의 목적 및 역할을 알릴 수 있는 정보자료들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세미나 혹은 워크샵, 프로그램, 전시 등도 계획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WPRIM/GHL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주도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과 배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어야 한다. Articles의 서지정보들을 스캔하고, 서지정보 기록에 스캔된 자료들을 링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IT요원들과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rticles의 서지정보데이터를 넣어 PubMed/MedLine에 색인된 지역학술지들의 인용을 WPRIM에 복사를 하고, WPRIM 데이터베이스에 Articles의 서지정보를 Upload하여 서지정보 데이터들에 대한 점검하여 국내외적인 문헌들의 배포를 용이하게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WPRIM/GHL 중심 사서들에게 Technical Reports, Papers 혹은 지역 학술지들의 홍보물 배포에 협조하는 것 또한 WPRIM에서 사서의 역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위에서 살펴 본 WPRIM의 수록되어 있는 의학·건강 저널 종수 및 WPRIM의 Platform operation 현황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등재 Journal 종수가 416종, Articles upload 건수가 199,086, PubMed 등재 Journal 종수가 115종이나 되며 Crawling 건수도 중국의 CNKI 135건, 한국의 KoreaMed 118건, 일본의 J-stage 3건으로 총 256건에 이르러 서태평양 지역 의학·건강의 높은 학문적 성과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하여 선진국 유명 학술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PubMed도 중요하지만 지역이나, 습성, 기후, 풍토에 따라 발생하는 질병이 다르고 처방되는 약도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및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도서관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WPRIM의 발전을 위해 활약하신 서정옥 관장의 노고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 중심이 아닌 지역별 의학·건강 정보와 이를 묶은 글로벌 인덱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이 강조되어서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대한의학회(Korea Academy of Medical Science)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구축한 KoreaMed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WPRIM은 앞으로도 더 한층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WPRIM에서의 사서의 역할 또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여하에 따라 급변하는 정보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WPRIM에서 사서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 사서는 학술정보의 활용가치를 높이게 하고, 학술정보지식의 매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지식정보

요구를 확인하고, 의학도서관인 경우에는 의학 및 생명과학 등 특정분야를 체계화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정보지식 관리자로서 전문적인 연구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학술적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지식을 향상시킴으로써, 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 수행은 사서의 전문성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마련에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서태평양 지역의 의학·건강 학술지 통합 시스템인 WPRIM이 더 더욱 발전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지식정보에 대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간 상호학술 교류를 통해 WPRIM의 Hub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서의 역할 전환 및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미혜,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변화에 관한 역사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제7권, 2001, PP.1-21.
- 김성혁, “정보화 사회에서 사서의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 지식공학과 지식공학자의 역할 수용태세를 중심으로”, 제10권 제2호, 1993, PP.69-85.
- 김휘출, “지식경영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3호, 1999, PP. 36-66, 199-231.
- 박인웅 “사회발전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1권 제1호, 2000, PP.23-39.
- 서은경, “고도 정보사회에서의 사서의 새로운 역할”, 국회도서관보, 제240호, 1995, PP.5-16.
- 엄영애, “사서직의 전문적 요건과 수행업무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3호, 2004, PP.159-175.
- 이경민, “디지털 환경에서 사서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9권 제1호, 2008, PP.157-174.
- 이은철, 김갑선, “사서직의 직업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 2002, PP.25-47.
- 이지호, 박옥화, “전문도서관의 블루오션 창출을 위한 t서의 역할 및 업무영역 다변화,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3호, 2008, PP.189-205.
- 정현욱, 강혜영, “도서관 사서의 역할 지향에 관한 Q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 2007, PP.13-30.
-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제39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07년

Institute of Medical Information & Library, Chinese Academy of Medical Sciences & Peking Union Medical College, "Guide for Information Retrieval and Data Management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WHO Western Pacific Region , "WPRIM News", vol.2, issue no.1, 2008

[인터넷 웹사이트]

<http://imicams.ac.cn>

<http://www.koreamed.org>

<http://www.wpro.who.int>